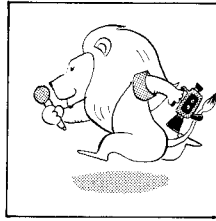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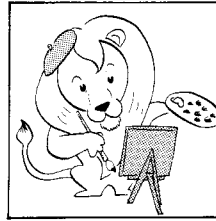
□문리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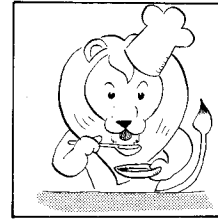
□법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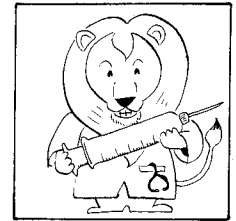
□정경대학



□사범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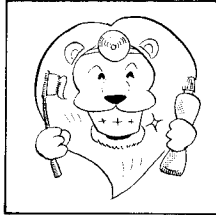
□기정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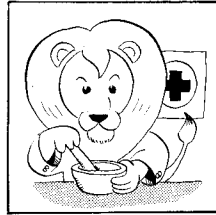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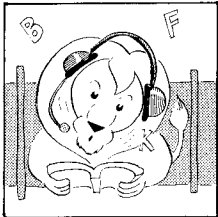
□약화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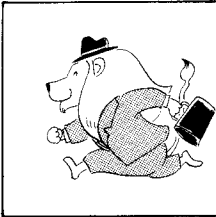
□음악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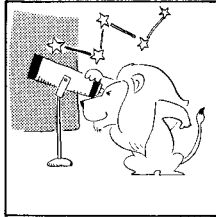
□체육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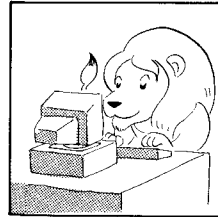
□외국어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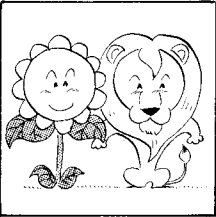
□사회과학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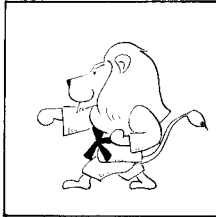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산업대학



□체육과학대학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45년전 우리에게서 고황(高凰)이라는 황무지의 땅과
1천5백만환의 은행부채 그리고 “하변된다”는 의미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건물이 생기고 탑이 올라가고
교육철학이 생기니 학구열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넘기니
수원근교 신갈호반을 옆에 끼고 나래를 편 수원캠퍼스와
아늑한 숲에 쌓여있는 광릉캠퍼스까지 거느리는
학문의 전당으로 발전했습니다.

영문·국문·중문 등 3개 과만으로 출발한 학부는 이제
17개 단과대에 71개 학과에 이릅니다.

한때 우리는 각자의 모습에 따라 반목과 불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큰소리로 외칠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학문과 자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살아 숨쉬는 21세기
그 험한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 사자들이며
이상과 뜻은 달라도 우리는 慶熙라는 이름아래 하나입니다.

